02
2022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 코리안페스티벌… 이민사 120년 맞아 이민 출발지 인천서 개최
기획 _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19대보다 6만명 감소…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영향
화제 _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한국 기업이 주도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용맹과 위엄의 기상이 서린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행복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로 이주하여 세계 각국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오신 재외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가난한 나라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당당히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해 오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회는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이민 1세대들에게는 고국의 변화상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한인들의 가족사와 근대화를 거치며 해외로 진출했던 수많은 이주의 기록들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둔 오늘의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재외동포의 헌신과 노고, 그리고 빛나는 애국심이 있었음을 널리 알리고 교육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해온 동포사회의 세대 교체기에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이민 4, 5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은 물론 한국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지원해나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육도 매년 우수한 전문직과 교원을 해외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에 파견하여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동안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거주국에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중추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동포사회의 연대와 발전에 힘써주시는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재단으로 무궁토록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

차례 CONTENTS

2022. 02

02 권두언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04 특집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 코리안페스티벌
이민사 120년 맞아 이민 출발지 인천서 개최

06 기획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19대보다 6만명 감소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영향

08 화제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한국 기업이 주도

10 한민족 공감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12 글로벌 코리안 플뢰르 펠르랭 전 한국계 장관 프랑스 최고 훈장 받아
한인 2세 음악PD 나에스더, 코로나 위로 앨범 'FREE' 발매
'에콰도르 보건의료 봉사' 민옥남 수녀

14 문화유산 운주사 천불천탑… 누워 있는 돌부처와 무수한 불탑, 그 불가사의

16 유공 동포 미주 이민 역사의 산증인… 민병용 LA한인역사박물관장

17 주목! 차세대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18 동포소식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한인 위해 우리 달력 3천200부 배포 외

20 동포 캘린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쿠바 한인 이민 100년사' 출간 외

21 지구촌 통신원 미얀마, 시도 때도 없는 정전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할 대학생 봉사단 운영 외

24 유관단체 소식 한국국제협력단, '코로나19 초기대응 백서' 발간 외

25 기고문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이진영 '무지개 나라의 유산' 영화 감독

26 재단공지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에 참여하세요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 코리안페스티벌 이민사 120년 맞아 이민 출발지 인천서 개최

1

1902년 12월 22일, '미지의땅'으로 떠나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한인 이민자 121명을 태운 일본우선회사 현해환(겐카이마루)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닻을 올렸다.

2일간 항해 후 일본 나카시키에 도착한 이들 중 102명이 하와이로 가는 미국 증기선 게일릭호에 탑승했다. 1903년 1월 13일 새벽, 한국 첫 공식 이민자들이 미국 호놀룰루항에 발을 내디뎠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2월 20일 한국 이민사 120주년을 기념하여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코리안페스티벌'을 인천에서 열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코리안페스티벌을 지방에서 개최한 사례가 없다. 또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행사',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구촌 한인사회 리더,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 발전 논의

2000년 시작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맞춰 열리는 행사이다. 전 세계 74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각국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연합회 임원 400여 명이 모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인회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세계 각지에 사는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한 바 있다.

올해는 한인사회 리더들이 한인 이민사가 처음 시작된 인천에 모여 모국과의 유대 강화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이어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67개국 310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한민족 공동체 번영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회의에서는 ▲모국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함께 노력 다짐 ▲동포사회 숙원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에 협력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보완 촉구 ▲재외동포청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 기관 설치 촉구 등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역대 대선 후보들도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고, 이번 20대 대선 후보들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또 각국 한인회를 대표할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출범식도 열렸다. 이 단체는 동포사회와 모국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자임하면서 세계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세계 한인의 날' 제정 이후 해마다 열리는 코리안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동포 예술인을 초청해 개최하는 한민족 문화예술 축제로, 1998년 처음 열린 서울예술제가 모태다.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 출항지 인천, 한인 이민사 정리된 이민사박물관

'개항 도시' 인천은 한인 이민사가 처음 시작된 곳, 공식적으로 첫 이민이 시작된 출항지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던 102명을 시작으로 1905년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고국을 떠났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 독립자금에 보탰던 하와이 교포들은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고국에 공과대학을 세우라고 성금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인하학원'이 설립됐다. 인하대학교는 인천(仁川)과 하와이(荷蛙伊)의 첫 자를 따서 학교의 교명을 지었다.

인천시는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릴레이 작가전'(7월), '한민족 이민사 120년 기념행사'(10월), '사진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120년'(10월), '디아스포라 120주년 학술도서 발간 및 토크콘서트'(11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소속인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건립된 국내 최초 이민사박물관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돼 있으며 2층 1~2 전시실부터 관람한 후 1층 3~4전시실 순으로 관람하면 된다.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민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1월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재외동포 이민 자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 이민사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수집에 공조하고, 아카이브 추진과 자료를 공유·연계하고, 사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존·전시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다. 창

1.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2021년 10월 7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인천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마당의 조형물 '염원의 항해'는 제물포항을 출항해 대양으로 나간 이민자들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3.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네 번째)이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4. 2020년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 19대보다 6만명 감소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영향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 신청자 수는 총 23만1천314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학생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 영구명부에 들어 있는 재외유권자 등 23만여 명의 유권자가 2월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 때의 30만197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유학생 ·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여 명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 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유권자 수 감소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등을 꼽았다. 김교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에 사는 유학생과 단기체류자 등 상당수 재외국민이 귀국해 재외선거 등록자 수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대선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 · 등록 독려 활동을 해왔다. 김 총장은 "특히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코로나19가 발생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귀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발표한 '2021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수는 2019년 59만2천441명에서 무려 17.39% 감소한 48만9천420명을 기록했다. 중남미는 10만3천617명에서 12.86% 줄어든 9만289명, 중동은 2만4천498명에서 24.98% 급감한 1만8천379명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귀국 등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재외국민 수는 246만1천386명에서 4.51% 감소한 235만422명을 기록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중국 지역을 합치면 23만3천432명의 재외국민이 줄어든 것이다. 그는 "이 인구 통계는 2020년 통계를 취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귀국한 인원 등까지 합치면 올해 재외국민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공관의 선거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 행사를 못 한 재외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재외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정치권이 그 기대를 또 저버렸다"며 "그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

서영교 · 설훈 · 김석기 · 이형석 · 이은주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재외선거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해서 우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대선 투표가 끝나고, 2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개정법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청와대, 외교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뛰어다니며 우편투표 도입을 호소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10개 대륙 375명 전 · 현직 한인회장의 친필 서명 등을 담은 400쪽 분량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약 30만 명에 이어 역대 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권자 수이다. 창

1. 한눈에 보는 재외선거 역사
2. 지난해 11월 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시드니의 한인 밀집지역 중 하나인 이스트우드에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본딴 '유권자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신청 및 신고 행사가 열려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년 달라지는 것

초중고 재학 중국동포 자녀, 졸업 때까지 체류 허가

법무부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1월 3일부터 이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 · 중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그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다. 부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는 체류 기간 졸업 시까지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상이 되는 동포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해외 한인 2세는 오는 3월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서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을 한 한인 2세는 오는 6월 30일 이내에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한인 2세 남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재외국민들에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챗봇'으로 궁금한 민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과 재외공관정보를 안내하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중 전 분야로 확대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그간 관용 ·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된다. 일반 국민용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뀌고, 개인정보면은 보안성 · 내구성이 강력한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제작했다. 사증 면수도 늘어나고 디자인에는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했다.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한 뒤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한국 기업이 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 IT 전시회 'CES 2022'(1월5~7일)는 신기술의 향연 무대였다.

올해 CES는 행사 기간이 나흘에서 사흘로 하루 단축되고 참가 기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인 2천200여 개로 줄었지만,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500여 개 기업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글로벌 산업계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신기술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올해 전체 CES 혁신상 623개의 22.3%인 139개를 한국의 기술과 제품이 받았는데, 이는 2020년과 2021년의 101개 수상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행사 기간 전시장 곳곳이 텅 비고 관람객도 크게 줄었으나,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대부분 국내 대기업 부스였다.

'신기술 향연' 속 빛난 한국 기업

삼성전자는 참가 기업 중 가장 넓은 약 3천600㎡ (약 1천90평)규모의 부스를 마련했으며, 사흘간 방문 관람객은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차원에서 현장 키오스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했다. 관람객이 많이 몰릴 때는 입장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을 정도였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네오(Neo) QLED TV 신제품을 선보였다. TV · 모니터와 관련해선 새로운 폼팩터(형태) 제품으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화면을 띄우는 휴대용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 폴더블 스마트폰, 맞춤형 '비스포크' 가전 등 모든 코너가 해외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 1월 4일 CES 2022 기조연설의 첫 주자로 나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삼성의 초대형 사이니지는 컨벤션센터에서 모빌리티 기업 부스들이 모인 웨스트홀의 간판을 장식하며 그 위상을 뽐냈다.

계열사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반 'QD-디스플레이'(Display)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QD-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에 무기물인 QD(퀀텀닷 · 양자점) 물질을 입힌 디스플레이다. QD는 전기 · 광학적 성질을 띤 나노미터(nm · 1nm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수 경쟁업체가 불참한 틈을 타 '메타모빌리티'(로보틱스+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해 모빌리티 업체 중 가장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 372평 규모로 차려진 현대차 부스에는 자동차 대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과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PnD 모듈)을 기반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이 자리를 잡았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은 곳곳이 비어 썰렁했지만, 모듈을 형상화한 현대차 부스 앞은 관

1

2

3

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SK그룹은 이번 CES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었다. SK는 올해 CES에서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Green Forest Pavilion)이라는 이름으로, 숲을 모티브로 한 부스를 마련해 단연 주목을 받았다. 전시관의 하이라이트인 '생명의 나무' 구역에서 거대한 참나무를 둘러싼 4개 벽면이 울창한 숲을 담은 영상을 내보내며, 모든 공간이 녹색으로 변하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SK가 직접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버디앱'이 깔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전시장 곳곳의 NFC 태그에 댈 때마다 음성과 휴대전화 텍스트로 설명을 듣고 읽을 수 있었다. 생명의 나무 구역에서는 단말기로 벽면의 전시품을 보면 증강현실(AR)로 관련 정보를 보여줬다. 특히 단말기를 NFC 태그에 대면 그린포인트도 함께 제공됐는데, 이 그린포인트로는 친환경 게임을 하거나 적립이 가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기술·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만들어 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넷제로가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그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다른 한국 기업들과 달리 올해 CES에 온라인 위주로 참가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에는 제품 실물 없이 QR코드를 인식해 가상 체험을 하는 이색 부스를 마련했다. LG전자는 또 온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올레드 TV인 97형, 최소인 42형 신제품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 등을 공개했다. LG 올레드 TV는 10년 연속으로 CES 혁신상을 받았고,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과 일체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 등 LG전자의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도 현지 전문매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CES에 출전해 '퓨처 빌더'(Future Builder·새로운 미래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의 글로벌 데뷔전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산그룹은 원격 조정 굴착기, 완전 전동식 건설장비, 무인 지게차 등 친환경 장비를 전시해 건설·기계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메타버스·디지털 헬스케어 진화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들도 CES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다.

한글과컴퓨터 그룹은 우주, 메타버스, 아바타, 모빌리티 등 신사업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메타버스 회의 플랫폼 'XR(확장현실) 판도라'를 시연, 관람객들은 안경을 착용한 뒤 가상현실 속 회의장에 들어가는 듯한 체험을 했다.

바디프랜드는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은 산소 공급 안마의자 '더 파라오 O_2'를 비롯해 로봇 형태 안마의자 '팬텀 로보' 등을 선보였다. 팬텀 로보는 상황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 다리 부분에 서로 다른 형태의 마사지를 제공한다.

코웨이도 내부에 에어셀 80개를 담은 '스마트케어 에어메트리스' 등을 선보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잠자리 기술을 뜻하는 '슬립테크'(sleeptech)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냈다. 이 매트리스는 원하는 대로 경도(딱딱한 정도)를 설정할 수 있고 몸의 하중이 실리는 부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한국 스타트업은 사상 최대 규모인 290여 개사가 참가했다. 각국에서 온 스타트업 800여 개사 중 36% 이상이 한국 기업이었다. 이들 한국 스타트업은 주로 초기 스타트업 전용관인 '유레카파크'에 자리를 잡았으며,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창

1. 관람객이 SK의 탄소 감축 노력을 담은 SK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을 보고 있다.
2. 바디프랜드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이 안마의자를 체험하고 있다.
3. 제품 전시 없이 QR로 채운 이색적인 LG전자 전시관.
4.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마이크로 LED'를 보고 있다.
5.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의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미국 지자체 '한인의 날' 선포… 263만명 각계에서 맹활약

1

2

3

1월 13일(현지시간)은 119년 전인 1903년 대한제국 젊은이 102명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LA)시 정부 등은 이날을 기념해 지난 1월 8일 LA에 있는 한 호텔에서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선포식을 개최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한인 최석호 씨와 새런 쿼그-실바 씨가 공동 발의한 기념 결의안이 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이날 선포식이 열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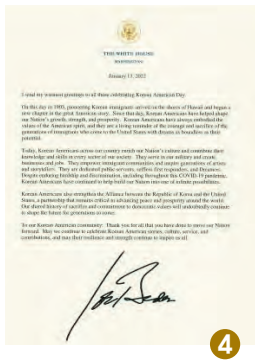
한인 단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민 119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대담 등의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1월 13일 오후 7시 온라인에서 한인 이민 역사를 알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한인 차세대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한 대담에는 찰스 윤 회장과 이민사 전문학자인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소수인종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한인회 홈페이지(www.kaagny.org)를 통해 생중계됐다.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지부(회장 이미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년 개최하던 연방 의사당이 아닌,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사장 홍승주)은 앞서 1월 9일 페더럴웨이 공연예술센터에서 한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하 공연을 펼쳤다. 노래와 춤, 풍물놀이 등을 펼친 이 공연은 한인미술인협회, 페더럴웨이 한인학부모협회, 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워싱턴주 한미연합회, 샛별예술단 등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인들은 이러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미국 한인 이민 역사 119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던 한



4

인은 1903년 102명을 시작으로 1905년 8월 8일까지 모두 7천 226명에 달했다. 한인들은 새벽부터 매일 12시간 동안 사탕 수숫대를 자르는 노역을 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농장 감독자들의 비인간적 처우와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한인교회를 세워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모아 독립자금에 보탰다.

혼기가 찬 한인들은 사진만 보고 혼인을 정한 이른바 '사진 신부'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남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부인들은 삯바느질과 세탁 등으로 생계를 돕고 2세들을 길렀다. 한인 학교가 생겨났고, 일부 한인들은 본토로도 진출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퍼져나갔다.

이후 119년이 지나는 동안 재미동포 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2021년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미동포는 263만 3천777명에 달한다. 이는 중국(235만422명)보다 많은 수이다.

한인 2~4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류사회에 기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 100년이 되던 해인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미주 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 제정을 결의했다. 이 사업회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주한인재단은 제정안을 각계에 청원했고, 2005년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은 차례로 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한인재단은 이후 매년 1월 1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선포한 결의문에서 "많은 한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재정, 기술, 법률, 의학, 교육, 스포츠, 미디어, 예술,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캘리포니아에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번영 도운 한국계 미국인에 감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 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했으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했고, 지식과 기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여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가 되는 데 한국계 미국인들이 계속 일조했다면서, 이들이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의 핵심인 한미동맹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진전을 위해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한 모든 일에 감사한다며 서한을 마쳤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고문도 서한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미주 한인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개인적 · 국가적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 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을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 의원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셸 박 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의원 등 한국계 동료 의원을 비롯해 7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영 김 의원은 "한인들은 미국의 모든 면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고메즈 의원은 "최대 한인 커뮤니티인 LA 코리아타운을 대표해 한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 · 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하원의원도 "미국 최초의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 119년이 됐고 그로부터 미주 한인사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거뒀다"면서 감사 서한을 보냈다.

'한국 사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날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한 포고문을 발표하는 한편 별도의 축하 영상을 통해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 첫 세대의 용기를 기념한다"고 밝혔다. 창

1. 캘리포니아주 '한인의 날' 선포 관련 기념 촬영.
2.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 기념 촬영.
3. 최초 하와이 이민선 게일릭호.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한인유권자연대에 보낸 감사 서한.

GLOBAL KOREAN

플뢰르 펠르랭 전 한국계 장관 프랑스 최고 훈장 받아
3년 반 동안 3개 장관 역임… 2016년 벤처캐피탈 설립

한국계 입양인 출신인 펠르랭 전 문화부 장관이 프랑스 최고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기사)장을 경제 부문에서 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프랑스 최고훈장으로, 영예로운 삶을 산 인물에게 준다. 훈장 등급은 슈발리에(Chevalier, 기사), 오피시에(Officier, 장교), 코망되르(Commandeur, 사령관), 그랑 도피시에(Grand Officier, 대장군), 그랑 크루아(Grand-Croix, 대십자) 등 5개로 나뉘며 뒤로 갈수록 격이 높아진다.

펠르랭 전 장관은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 "모든 장관에게 수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 장관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일종의 전통과도 같다"며 "지금 하는 일이 프랑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16년 퇴임 후 벤처캐피털인 코렐리아 캐피탈을 세우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변신했다. 코렐리아 캐피탈은 그간 한국 기업 네이버가 주로 투자한 펀드로 유럽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고 이 회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이제는 반대로 유럽에서 펀드를 모아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규모를 키워 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돕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머리가 뛰어나 16세에 대학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하고 17세에 상경계 그랑제콜인 에섹(ESSEC)에 진학한 후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국립행정학교(ENA) 등 최고 명문 학교를 졸업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당적을 초월한 프랑스 최고 여성 엘리트 정치인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21세기 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소외지역 우수 중·고교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탁월함과의 대담'에 참여하기도 했다.

회계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2002년 올랑드 전 대통령이 속한 사회당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2007년, 2012년 세 번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회당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2012년 5월 중소기업·디지털경제 담당장관으로 입각했다. 기용 초기 동양계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후 2년 동안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다. 3년 반 동안 3개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통상국무장관을 거쳐 '문화대국 프랑스'의 문화 행정을 책임지는 문화부장관 등 3년 반 동안 3개 장관을 역임했다.

펠르랭 전 장관은 사회당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는 찾지 못해 지난 2017년 대선을 끝으로 당원 연장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인 2세 음악PD 나에스더, 코로나 위로 앨범 'FREE' 발매
미국 할리우드서 활동… "희망주고 싶어"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음악 PD 나에스더(38)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세계인들을 위로하는 앨범을 내놓았다.

나 PD가 직접 작곡 · 편곡한 4분 38초 분량의 '프리(FREE)' 음악은 재즈와 팝, 퓨전이 섞여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여성 기타리스트 라리 바실리오와 연주도 했다.

나 PD는 "코로나19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곡"이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곡이 되어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전하였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데이비드 라이언 해리스 등 세계적인 음악가 13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 가족들을 격려하는 앨범 'Alone Together'(따로 또 같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앨범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연대 기금 마련을 위해 제작됐다.

나 PD는 '게임 체인저-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뜻의 '더 와일드카드즈'라는 음악프로듀싱 회사를 운영한다. K-팝 스타인 'EXO', 'NCT127', 'NIKKI Flores', '3LAU' 등과 음악 작업을 했고, 배우이자 가수인 윌로우 스미스와 캐나다 투어 공연을 했고, 그의 음악 디렉터(MD)인 매튜 버넷과도 연주했다.

오스트리아 빈 태생인 그는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고, 빈 국립음대에 입학 후 대중음악에 매력을 느껴 빈 시립음대로 옮겨 재즈 피아노를 공부했다. 버클리음대에 재학할 때부터 작곡가, 연주가, 제작자 등으로 이름을 날렸다.

'에콰도르 보건의료 봉사' 민옥남 수녀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최고상 수상

에콰도르 극빈 지역인 페드로 카르보에서 장애아와 부녀자의 의료 보건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민옥남(62) 수녀가 지난 연말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 소속인 민 수녀는 2008년 에콰도르에 선교 수녀로 부임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 설립한 '자비의 성모재단 병원'과 'INESEM 장애인학교' 등을 운영해왔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철수하지 않고 병원을 개방,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전념했다.

당시 이 지역은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퍼지면서 지역의료 기반이 무너졌다. 몇 개 없던 개인 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고, 보건소도 약을 배급하는 것 외에는 환자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모두가 환자 돌보기에 매달렸다. 제대로 된 방역 마스크도 부족하던 때라 의사, 간호사, 방역 담당 직원 등이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민 수녀는 "병원 직원 모두가 우리마저 문을 닫으면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리를 지켰다"며 "모두 건강을 회복했고, 사망자 등 중증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14년째 지역민과 장애 아동을 돌보면서 민 수녀가 지켜온 원칙은 수혜자에 대한 '존중'이다. 민 수녀는 "주거 시설이나 교육 환경 등 모든 게 한국보다 많이 뒤처졌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 지수는 훨씬 높다"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현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창

1

운주사 천불천탑
누워 있는 돌부처와 무수한 불탑, 그 불가사의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의 말사인 운주사는, 누가 왜 이곳에 천불천탑을 세웠는지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쌓았다는 전설을 포함해 지역 호족 세력이 세웠다는 설, 도교사원이나 밀교사원이라는 설, 마고 할미가 세웠다는 설, 천민과 노비들이 세웠다는 설 등,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천불천탑을 세웠는지,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가지가지다.

독일의 사진작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요헨 힐트만은 '미륵'에서 "운주사는 노동과 소유와 유용성이 녹아 있는, 생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엄숙한 장소"라고 했고, 소설가 황석영은 장편소설 '장길산'에서 운주사를 새 세상을 꿈꾸며 천불천탑을 세우려다 실패한 통한의 땅으로 그렸다.

1530년 편찬된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절의 좌우 산등성이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천 개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지금은 석불 90개와 석탑 21기만 남아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이곳의 탑과 불상을 헐어다가 묘지 상석이나 주춧돌, 구들장, 섬돌, 축대 등으로 사용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천불천탑

전남 화순의 운주사 일원은 해발 100m 내외의 비교적 낮은 야산지대로 수많은 석불과 석탑이 무리를 지어 있고, 정형성, 섬세함, 정교함이 없는 돌덩이 같은 석불들이 방문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돌지붕 아래에 하나같이 못생기고 어설픈 석불들이 도열해 있다. 석불들은 크기가 각각 다르고

얼굴 모양도 선만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눈과 입, 기다란 코, 단순 소박한 법의 자락 등 매우 다양하다. 언뜻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석불들을 사람들은 아버지부처, 어머니부처, 아들부처, 딸부처라고 불러오기도 했다. 불상은 마모가 심해 얼굴 형체를 분간하기도 힘들고, 돌부처의 코를 긁어다가 삶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미신과 돌부처의 귀를 삶아 먹으면 과부나 처녀가 애를 뗀다는 미신 때문에 코와 귀도 어디론가 다 떨어져 나갔다.

석불군 바로 옆에 있는 구층석탑(보물 796호)은 자연 암반을 다듬어 그대로 지대석으로 썼고, 탑신부에 기하학적인 문양이 조각돼 있다. 옥개석(지붕돌) 밑 여러 겹의 빗살무늬는 밝은 빛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모습이다. 바로 뒤편의 칠층석탑은 직선적이고 다소 가파른 처마의 선, 우람한 옥개석이 경주 감포의 감은사지 석탑과 닮았다. 돌부처와 칠층석탑을 지나면 돌로 만든 팔작지붕 석실 안에 두 석불이 등을 대고 앉아 있는 석조불감(보물 제797호)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운주사를 밀교사원으로 보는 사람은 쌍배불상을 음양(陰陽)상으로 보기도 한다.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과 보제루를 지나면 1990년대에 새로 지은 대웅전으로 들어서게 된다. 대웅전을 지나 대웅전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벼랑 암벽의 요철 부분을 그대로 살려 부조로 새긴 마애여래좌상이 희미하게 남아 반긴다. 운주사의 유일한 마애불에서 계단을 오르면 바로 운주사 창건 설화가 서려 있는 공사바위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쌓을 때 도선국사가 이 바위 위에서 전체 공사를 지휘 감독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는 석탑과 석불들이 죽 늘어서 있는 협곡은 물론 산등성이의 석탑들도 한눈에 들어온다.

공사바위를 내려와 경내에 들어서니 뎅그렁거리는 맑은 풍경소리가 경외감마저 자아낸다. 운주사를 찾았던 정호승 시인은 "운주사 와불님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데 바람 불어와/ 풍경소리 들리거든/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고 읊었다

대웅전 서편으로 발길을 옮겨 비스듬히 깎아지른 바위 위에 홈을 파서 만든 칠층석탑을 지나면 동자승이 벌을 받아 시위불로 변했다는 석불 입상이 반긴다. 도선국사가 하루 낮밤에 천불천탑을 세워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했으나 게으른 동자승이 거짓으로 "꼬끼오" 하고 닭소리를 내는 바람에 석공들이 날이 샌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 결국 와불(臥佛)로 남게 됐다는 이야기가 얽혀 있다. 민초들은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어 왔고, 이는 운주사의 전설이 됐다.

시위불 바로 위 산꼭대기에는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부처 한 쌍이 반듯이 누워 있다. 자연암반에 새기다 만 길이 12m, 폭 10m에 이르는 거대한 와불의 팔베개하고 옆으로 누워 있지 않고 천공을 쳐다보고 있다. 얼굴이 갸름한 달걀형 와불은 머리는 남쪽을, 발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거대한 와불은 천년 동안 눈과 비를 맞았고, 그 위로 바람과 구름이 스쳐 지나갔다. 와불 아래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둥근 바위 7개가 북두칠성과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다. 이는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칠성신앙을 엿보게 한다.

서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하면서도 같지만 하나같이 정겹고 소박한 운주사의 석불들을 친견하던 날, 하늘은 새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와불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염원을 간직한 채 운주사 일주문을 나섰다. 산 너머로 밀려오는 기운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창

1.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운 와불. 이 와불이 일어서는 날 세상은 바뀐다는 설화는 운주사의 전설이 됐다.
2. 운주사에는 석불과 석탑 110여 개가 산재하는데 누가, 왜 불상과 돌탑을 세웠는지 알 수 없다. 돌지붕 아래 도열해 있는 다양한 석불들.
3. 대웅전과 지장전, 사층석탑.
4. 공사바위에서 내려다본 석탑.

미주 이민 역사의 산증인 민병용 LA한인역사박물관장

40여 년간 미주 독립운동 · 이민사 조명, '보훈문화상' 수상

민병용 LA한인역사박물관장이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40여 년간 초기 이민 자료를 수집하고, 도산 안창호 가족의 독립운동 사업지원, 미주 독립유공자 저서 발간, 국내 · 외 학자와 언론인에게 역사 자료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훈문화상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을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학술위원장도 맡고 있는 민 관장은 한국일보 미국 특파원 당시 독립운동가와 하와이 초기 이민자 인터뷰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미주 독립운동사 · 이민사를 연구, 기록하고 있다.

민 관장이 발품을 팔아 집필한 '미주 독립유공자 전집-애국지사의 꿈'은 이승만 · 안창호 · 서재필 · 장인환 · 전명운 등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215명의 발자취를 망라한 책이다. 2016년 발간한 이 책에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미주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 1945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미국 · 멕시코 · 쿠바의 독립유공자 전원의 행적이 담겨 있다.

민병용 LA한인역사박물관장은 40여 년간 미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알려온 원로 언론인이다.

민 관장이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의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관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집필한 '애국지사의 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초기 미주 한인 이민사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야기도 수록했으며 850장의 사진을 곁들였다.

민 관장은 '미주한인이민100년사'(2002), '미주의 한인들'(2006), '미국땅에서 역사를 만든 한인들'(2011), '한인역사박물관 소장품'(2019) 등을 펴낸 미주 이민사의 산증인이다.

재미동포 인명록 '미국 땅에서 역사를 만든 한인들'은 12년에 걸쳐 집대성한 기념비적 책이다. 각 분야에서 이름을 남긴 재미동포 3천12명의 출생지, 미국에 온 연도, 학력, 경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사진과 함께 담았다. 특히 판사 38명 등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한인 2세 530명을 포함했다.

민 관장은 남가주 한인 649명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일일이 자료를 수집해 2001년 '남가주 한인 인명록'을 펴낸 이후 미주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각계 분야에 진출해 성공한 동포 2천250명을 수록한 인명록 '미주의 한인들'을 내놓았다. 그는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민희식 초대 LA총영사(1948년 10월~50년 7월 재임)가 인천상륙작전을 뒤에서 도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굴해냈다.

215명 가운데는 이승만이나 안창호처럼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한 집안에서 6명이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강명화 가족처럼 덜 알려진 독립운동가들도 있다.

민 관장은 미주 이민자들이 극심한 인종차별과 혹독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수입의 10~20%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고, 이 돈이 이승만은 물론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에까지 흘러갔다는 증언도 처음으로 소개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배재고와 연세대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북한학 석사를 받은 민 관장은 한국일보에 입사한 뒤 1973년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으로 발령나면서 미국에 정착했다. 1988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취재했으며 미주한국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창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

베이징 동계올림픽 빛낼 스타… 2연속 올림픽 우승 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동계스포츠 최대 이벤트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4~20일)을 빛낼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AFP통신은 이번 대회에 주목할 선수 5명을 소개했는데, 재미동포 선수인 클로이 김(22)이 선정됐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 3번째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는 2월 9~11일 중국 장자커우에서 열린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원통 모양을 반으로 자른 듯한 슬로프에서 경기를 펼치며 점프와 공중회전 등 고난도 기술로 순위를 가린다. 심판들이 기본 동작, 회전, 기술 난도, 착지, 테크닉 등의 부문에서 점수를 매겨 합산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클로이 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천재 스노보드 소녀’ 클로이 김은 올림픽 데뷔부터 화려했다. 클로이 김은 2018년 2월 휘닉스 평창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에서 ‘급이 다른’ 기량을 뽐내며 그간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명성을 입증했다.

4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한 클로이 김은 13살에 이미 미국 국가대표에 뽑혔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2014년 소치 올림픽에는 뛰지 못했다. 15살인 2015년 동계 엑스게임 최연소 우승, 여자 선수 최초 ‘100점 만점’ 등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지난 2016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동계유스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기수를 맡았던 클로이 김은 2018년 ‘부모님 나라’ 한국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면서 여러 기록이 작성됐다.

2000년 4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태어난 클로이 김은 만 18세도 되지 않는 17세 9개월(296일)에 올림픽 정상에 올라 하프파이프 종목 최연소 우승, 여자 스노보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새로 썼다.

클로이 김은 1984년 알파인스키 활강 우승자인 미첼라 피지니(스위스)보다 19일 이른 나이에 금메달을 따 설상 종목 여자 최연소 우승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제라드에 이어 동계올림픽 사상 두 번째 2000년대생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자로는 처음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재미동포 클로이 김이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걸고 기뻐하고 있다.

이후에도 그는 2019년 2월 세계선수권 우승, 3월 US오픈 준우승 등 성적을 냈으나 발목 부상으로 2018~2019시즌을 마무리한 뒤 프린스턴대에 입학했다. 부상 치료와 대학 입학 등의 이유로 2019~2020시즌에 대회 출전을 하지 않았던 클로이 김은 2020~2021시즌 건재를 과시했다. 두 차례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했고, 세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재확인했다.

한국인 부모를 둔 클로이 김은 ‘김 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다. 4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 6살 때 전미스노보드 연합회가 주최하는 내셔널 챔피언십 3위에 오를 정도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돼지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클로이 김은 2018년 4월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고, 같은 해 7월에는 미국 ESPY 스포츠 대상(Excellence in Sports Performance Yearly)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됐다. 창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한인 위해 우리 달력 3천200부 배포

성금으로 제작… 음력 · 명절 · 국경일 표기하고 고국 풍경 담아

지구촌동포연대(KIN)는 러시아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 제작한 달력 배포를 완료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KIN은 사할린 한인을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를 제작해 배포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라는 이름의 이 달력은 우리 세시풍속을 지키며 사는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우리의 고유 명절을 포함 '손 없는 날' 등 일상에서 쓰이는 음력과 한국 국경일을 표시했다.

우리말을 못 하는 한인 3~4세를 위해 러시아어 설명도 달았다. 달력 사진은 사할린 한인 돕기에 앞장서 온 사진작가 변영숙 씨의 국내 사계절 풍경으로 꾸몄다. 달력 뒷면에는 후원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넣었다.

KIN은 2014년부터 달력을 제작해 사할린 거주 한인과 국내 영주귀국 한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홈스크 등 한인 거주 주요 지역 한인회와 한인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국내는 인천, 파주, 남양주 등 전국 31개 영주귀국 한인 단체에 발송했다.

KIN 관계자는 "매년 달력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설 연휴 시작 전에 배포했다"며 "차세대들이 한국 풍경과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설명을 곁들였다"고 소개했다. 달력 제작과 배포에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도 후원했다.

한인 2세 임바다, 호주 ABC '본 투 스파이'서 열연

8살부터 극단 무대 올라… "할리우드 진출 꿈"

호주 한인 2세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미국 온라인 영화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점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호주 ABC 방송의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 '아이뷰'(iview)에서 공개된 10부작 드라마 '본 투 스파이'(Born to Spy)는 IMDb에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8.0)과 '지옥'(6.7) 보다 높고, 영화 '기생충'(8.6)에 버금가는 평점을 얻었다. 주인공 '민' 역을 맡아 열연한 임바다(영어명 오션 림 · 노스메드 창작&공연예술학교 · 14) 군도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 ABC 방송의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 '아이뷰'(iview)에서 공개된 10부작 드라마 '본 투 스파이'(Born to Spy) 홍보 이미지

임 군은 8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호주한인극단(임기호 대표)에서 단원으로 활약했다. 극단은 비영리 공연 단체로, 호주 지방 정부와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그는 1998년 유학차 호주를 방문했다가 정착한 임 대표와 호주음악대학 김나리 교수 사이에서 2007년 태어났다. 임 군은 뮤지컬 '그리스', '가스펠', '쏠티와 함께' 1 · 2편, '사운드 오브 뮤직', 단편 영화 '온 에서' 등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다.

학교에서 보컬을 전공하면서 여러 악기를 배우는 임 군은 매년 뮤지컬 무대에 올라 연기와 노래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그는 '본 투 스파이'에 출연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한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한다. 호주 기획사에 들어갈 계획인 임 군은 "한국과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한국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기회가 되면 꼭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고려박물관, 개관 20년 기념 한 · 일 역사 전시회 개최

한 · 일합병, 3 · 1운동, 전후 재일동포사 등 릴레이 전시

새 단장 공사를 거쳐 1월 3일 다시 문을 연 고려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일본 간 주요 역사를 조명하는 릴레이 전시를 열고 있다.

박물관에 따르면 1월 22일까지 '한국병합 100년, 재일동포와 전후 사회'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었고,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잃어버린 조선문화유산' 전시회를 개최한다.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는 '3 · 1독립운동 100년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재일동포가 펼쳤던 독립운동을 소개한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거리의 '한국광장' 건물 7층에 들어선 고려박물관 전시실 모습.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라는 주제로 20년의 역사를 담은 각종 패널을 전시하고, 지난 20년간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전시회를 다시 보여주는 '미니 앙코르'도 준비한다.

재일동포 연극인 · 작가, 일본인 역사학자 등이 참여해 재일동포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논하고 일제강점기 침탈해간 문화재의 반환을 모색하는 강연회도 열린다.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고려박물관은 재일동포를 포함해 일본 시민이 주축이 돼 2001년 12월 7일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신주쿠(新宿) 오쿠보(大久保)에서 개관했다. 박물관 이름은 '코리아'(KOREA)의 어원인 '고려'(高麗 · 일본어 발음은 고라이)에서 따왔다. '시민이 만드는 한 · 일 교류의 역사박물관'을 표방하며 지금까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진실을 알리고 양국의 화해를 위한 기획전과 음악회 · 공연, 시민강좌 등을 열었다.

NPO(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된 이 박물관은 자원봉사 하는 활동가들의 손으로 운영된다.

카자흐 탈출 동포 47명 무사 귀환… "곳곳에서 총성과 약탈"

유혈시위 사태 속에 8일 만에 탈출… 입국장 도착하자 '안도'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휩쓸려 알마티 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항공 OZ5781편 여객기와 승객 · 승무원 47명이 1월 13일 오후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다.

여객기는 지난 1월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해 다음 날 한국으로 되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가 공항을 기습 점거하면서 승객 · 승무원 77명과 함께 공항에 계류됐다.

대사관 근무자 가족과 승객, 승무원들이 1월 13일 알마티 총영사관에 집결, 알마티 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출장 차 알마티를 방문했다가 시위에 휩쓸렸다는 회사원 이동현(57) 씨는 "호텔 밖에서 총소리도 계속 들리고, 언제 또 피신해야 할지 모르니까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 1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백모(42)씨는 "시내 곳곳에 약탈당해서 부서진 건물이 많다. 가전제품 · 귀금속 매장이 특히 큰 피해를 보았다"며 "저는 비교적 시골에 있었는데도 사재기가 심해 식료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현지에 남편을 두고 잠시 귀국했다가 이날 귀국하는 지인을 마중 나온 동포 변모(46)씨는 "카자흐스탄에서 16년째 남편이랑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이 끊겨서 남편이 정말 죽은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동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외교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백씨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대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외교력에 크게 감탄했다. 외교부와 영사관에 감사드린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씨 또한 "먹을 것과 의약품을 지원해주신 동포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을 지켜준 알마티 영사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쿠바 한인 이민 100년사'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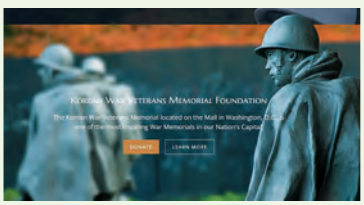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이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쿠바 한인 이민 100년사–쿠바 한인 디아스포라 100년의 여정'을 출간했다. 총 372쪽 분량의 이번 책에는 쿠바 한인 이민의 역사적 배경과 1세대 이민자의 삶, 한인들의 독립운동사, 후손들의 삶의 궤적 등이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현재 미수교 상태인 한국과 쿠바 관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망하고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성도 짚어본다. 정부 주요 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모국서 공부하는 재일동포 장학생 모집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회장 김화남)는 한국 대학에 유학 중인 재일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장학생을 모집했다. 1974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재일동포 기업인의 모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2009년부터 모국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재일동포 차세대의 면학을 돕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국의 4년제 이상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한국 국적 재일동포 또는 그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수업료 일부가 지원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공원 추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공원을 조성하고 흉상을 건립하는 계획이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홍범도 공원 설립추진위원회에는 주민, 시 · 구의원, 카자흐스탄 한인회 등이 참여했고, 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후손인 홍우표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장이 맡았다. 1994년 남 · 북 정부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시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때 당시 카자흐스탄의 묘역을 관리했던 장원창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장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산구는 홍범도 장군 공원이 조성되면 지난해 문을 연 고려인문화관과 함께 역사탐방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우호협회,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모금 캠페인 전개

미국 비영리단체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워싱턴에 세워질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0월 연방 상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한국 국회도 그해 11월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건립 예산은 총 2천420만 달러(약 286억9천만원)로, 한국 정부가 공사비용 2천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나머지 220만 달러(약 26억원)는 기부금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캠페인 참여는 기념재단 사이트(www.koreanwarvetsmemorial.org)를 통해 할 수 있다.

미국 한국학교협의회, 오는 7월 텍사스서 학술회의 개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 회장 김선미)는 7월 14~16일 텍사스주 휴스턴 우드랜드 워터웨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4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도약하는 한국학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미국 내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와 교원 1천여 명이 참가하는 NAKS의 최대 규모 행사다. 김선미 회장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 정체성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는 미국 내 한국학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981년 창립된 NAKS는 미국 전역에 14개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800여 개의 한국학교를 거느린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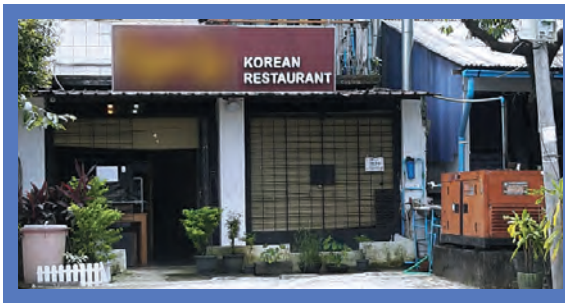
호주 한인단체, 연방정부 지원받아 '국경일 행사' 개최

비영리 단체인 한 · 호문화교류협회(AKCEA · 회장 오혜영)는 1월 26일 호주 시드니 버우드 파크에서 국경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인단체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경일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창립한 AKCEA는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의 버우드 지역 행사를 맡았고, 주제는 '함께 해서 좋은 날'(G'Day Together)로 정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K-팝을 비롯해 사물놀이 공연, 김치 맛보기 등의 행사를 열어 버우드 지역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렸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미얀마, 시도 때도 없는 정전

고충 겪는 한인 사회… "20년 전과 비슷" 한탄



미얀마 양곤의 한국 식당에는 정전에 대비한 발전기가 필수품이다(좌). 가동 멈춘 양곤 따께따구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8개월째로 접어든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최근 들어 한인 동포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예고 없이 발생하는, 그래서 일상이 되다시피 한 정전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일요일인 지난 1월 2일 오전 4시쯤 전기가 나갔다.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하는 기자는 서둘러 양곤 시내에 있는 사무실로 나갔다. 대형 건물은 그나마 자체 발전기가 있어 정전돼도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후 기자는 오후 7시 30분께 양곤 북부 노스 다곤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까지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서 30분가량 기다렸더니 오후 8시쯤이 돼서야 아파트 이곳저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 상한 음식 몇 개를 버려야 했다.

요즘 양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예고도 없이 정전이 일어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인해 불편했던 일상에 또 하나의 고충이 더해진 것이다.

우기 때는 전기가 짧은 시간 동안 자주 끊겼다면 건기인 요즘에는 한 번 전기가 나가면 짧게는 3시간여, 길게는 10시간 안팎씩 감감무소식이다.

인근에 사는 한인 A씨는 기자에게 "어제는 자다가 더워서 새벽 4시에 깨고 보니 전기가 나갔더라"며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양곤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한인 B씨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요즘 전기 사정을 보면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발전용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설비들이 다 전자동인데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 고장 나게 돼 수리 비용도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얀마는 전력 보급률이 50%대에 머물러 있다. 가장 높은 양곤도 80%가량이다. 게다가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건기와 우기 때 전력 공급의 계절적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에는 설상가상으로 양곤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가 전하기도 했다.

쿠데타 이후 환율 정책 실패로 달러 환율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전기 대금의 일부를 달러화로 지급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봉제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한 동포는 "건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이 정도라면 수력발전이 거의 중단되는 3월쯤이면 전력 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게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력 사정으로 외자 유치를 외치는 군부 정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

군부에 의해 정권을 빼앗긴 미얀마 문민정부는 34%에 머물렀던 전력 보급률을 끌어올려 집권 4년 차였던 2019년 말에 50%를 달성했고, 2030년에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할 대학생 봉사단 운영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와 교류하며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2022년도 대학생봉사단(OKFriends)' 15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봉사단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 간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특히 공공외교 활동 영역을 강화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재단은 2022년도에 '대학생봉사단(OKFriends)' 150명을 선발해 운용한다.

이들은 오는 6~8월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과 한글학교 교사 · 교장 초청 연수, 9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 세계한상대회 등에서 통역, 행사 보조,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한인 차세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참여한다.

모국에 수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과 교류 활동에도 참여하며, 해외에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동도 펼치게 된다.

재단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이 있고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갖춘 자로, 국내 대학(원) 재 · 휴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조직한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며 국내 유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재외동포 학생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3~12월이다. 12월 말에 봉사활동 평가 후 해단식을 갖는다.

미국 한국학교, 민족학 역사문화 교재 '스터디코리안'에 공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있는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재외동포재단 맞춤형 사업'으로 이중언어로 배우는 민족학 관련 역사 · 문화 교재 '한인 이민사 민족학에 나오는 세계 속의 한인 리더'를 발간했다.

지난해 1월 '아름다운 한국, 한국인의 삶'이란 제목의 교재 발간 이후 두 번째다. 현지화한 한인 3~4세와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도 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됐다.

이 책은 2021년 3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 확정한 7개의 '한인 이민사 인종학(민족학) 샘플 레슨 플랜'과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말 한국학교에서도 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다.

이 교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도산 안창호 선생,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대대장이자 6 · 25 전쟁 영웅인 김영옥 대령,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다이빙 2연패를 이룬 한국계 수영 영웅 새미 리 박사,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등 미주 한인사의 리더들을 다뤘다.

미국 다솜한국학교가 발간한 민족학 관련 역사문화 교재.

최미영 교장은 "2020년 초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서 발행한 인종학(민족학) 모델 커리큘럼 초본을 보고, 이는 한국학교에서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중대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2020~2021학년도 다솜한국학교 역사 문화 커리큘럼을 '자랑스러운 한인 리더'로 정했다"며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다양한 민족 영웅과 미주 사회에 기여한 인사들에 관해 가르쳤다"고 했다.

김영옥 대령, 세미라 박사, 박병석 박사에 대해 최 교장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한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계 역사에 공헌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민족학(인종학)'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최미영 교장은 재외동포재단 '스터디코리안'에 이 교재를 PDF 파일을 올려 놓았다. 그는 "전 세계 한국학교가 한인사 교재로 바르게 잘 사용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교사가 먼저 충분히 공부해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니 교재에 실린 참고 문헌들까지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솜한국학교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한국어와 영어로 책을 내고 있다. 이들 교재는 재외동포재단 '스터디코리안'에 PDF 파일로 올려놓아 전 세계 한국학교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정부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에서 정부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와의 협약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서울대학교–시흥시 간 3자 업무협약식.

재와동포재단은 지난 12월 29일 서울대와 시흥캠퍼스에 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민족 정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재외동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동포 차세대 맞춤형 연수, 한상(韓商)과 모국 간 상생 발전 교육,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제공, 국내 체류동포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을 맡게 된다.

시흥캠퍼스의 장점으로는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위치하여 인천공항 및 KTX광명역과 20분 거리에 위치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1천 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2개 강의실과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울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활용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살아 있다는 건 울어야 아는 것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호주의 삶
그 안의 행복에 대하여

김별, 박은지, 선율, 장겸주, 조소연 / SISO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톡톡히 느끼고 있는 호주 한인 동포 5명의 이야기가 발간되었다. 각자의 상황을 감당하며 호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은 삶이 담겨있다. 10여 년 전 난치성 희귀병을 얻어 독서와 감사를 통해 새 시작을 일궈낸 이야기, 남들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를 기르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 이야기 등 호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지난 기억을 복기해 글로 써 내려가는 동안 서로의 글을 읽으며 마음의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살아 있다는 건 울어야 아는 것'을 읽는 당신도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이든 호주든, 그 어느 하늘 아래서든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 같다. 자신만의 삶의 여정에서 '행복'을 알아보는 눈을 뜨는 것. 그러려면 때때로 실컷 울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녀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책의 제목처럼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자.

아틀란티스의 상공에 출렁이는 바다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아동문학학회 / 한국학술정보

중국 조선족 아동문학 분야의 작품 소설, 시, 동화, 문학평론 등이 발표되는 아동문학학회의 기관지가 발간되었다. 조선족 아동문학 분야의 중견작가와 신진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산물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소재들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의 수용자, 장르, 스토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평론도 함께 수록되어있다.

'아동문학샘터' 잡지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아동문학학회 창시자 김현순이 사장, 주간, 발행인을 맡아 펴내는 책자로서 조선족 아동문학분야의 중견작가들과 신진들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매호마다 장식되어 있다. 국제사회에 조선족아동문학을 홍보하는 유력한 창구 역할을 한다. 본호 잡지는 '아틀란티스의 상공에 출렁이는 바다'라는 제목으로 단행본 형식으로 묶어서 기관잡지의 혈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동포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아동문학의 형식들을 살펴보고, 동포 문학의 한 지류를 이루는 아동문학의 모습을 만나보자.

한국국제협력단, '코로나19 초기대응 백서' 발간

54개국 파견된 봉사단원 1천 933명의 '귀국 대장정'을 담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백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봉쇄(록다운) 상황에서 오지로 파견된 봉사단원을 제때 귀국시킨 모범 사례를 모아 '코로나19 초기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안전한 귀국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백서는 KOICA 해외 본부 및 사무소의 대응 조치, 안전상황본부 운영, 방역 확보와 봉사단 귀국, 귀국 후 조치 등의 사례를 국가별로 담았다.

백서는 항공편 확보, 경유지 항공편 취소 대응, 지방 파견 인력의 수도 집결, 재외국민 대피 지원, 다른 공여국 봉사단원의 대피 지원 등도 상세히 담았다. 페루 사무소의 경우, 버스로 1천 200km 이동하고, 군 공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손혁상 KOICA 이사장은 "본국 본부, 사무소, 공관, 한인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백서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인 안전대응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ODA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 '지한파' 양성할 한국어 교원 35개국에 파견

지난 1월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국내 교육 수료식. 앞줄 왼쪽부터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배종민 세종학당재단 사무총장.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은 2022년 상반기에 아시아·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CIS) 등 35개국 소재 58개 세종학당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한다.

이들은 2월부터 각국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사 운영과 행정 업무도 한다. 현지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도 지원한다.

재단은 58명의 파견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간 국내 교육을 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이론 실습, 한국문화 교수법, 현지 문화 이해, 학사행정 실무, 기본소양 교육 등을 이수했다.

특히 한글 멋글씨(캘리그래피) 수업,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방안 교육과 개별 심리검사 및 상담시간에 교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베트남 다낭 세종학당 파견을 앞둔 전서영 교원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문화 교육 이론을 배우고 실습도 해서 자신감이 커졌다"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한국어 교원의 열정과 노고야말로 해외 한국어 보급의 근간"이라며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으로 '지한파' 양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국어원과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협약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왼쪽)과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은 최근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 KF세미나실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대중적·학문적 열풍이 지속가능한 수요로 이어지도록 협력하자는 취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으로 107개국 1천 408개 대학에서 한국어(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관련 조사·연구,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연수를 맡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공동 추진, 기관별 단독 추진 사업 고도화와 내실화를 위한 협력, 지속 가능한 한국어 보급 방안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근 이사장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확장성과 전문성을 지닌 두 기관의 협업은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이진영
'무지개 나라의 유산' 영화 감독

그동안 살면서 두 번의 큰 도전을 했다. 첫 번째는 스물네 살 때로, 태어나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은 서울의 작은 동네를 벗어난 것이다. 그것도 태평양 너머 하와이라는 이국의 섬으로. 두 번째는 바로 작년 일로, 오래 몸담았던 방송국을 나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둘 다 확신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직감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조금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와 안도한다.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것처럼 다큐멘터리 작업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한인 이민사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건 다른 말로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시작해 미주, 나아가 전 세계로 이어지는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취재하고 영상에 담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 항에 백 스물 한 명의 한국인이 모였다. 태평양 너머 하와이라는 곳에 가면 학교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 중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열 아홉 명을 제외하고 백 두 명이 하와이 땅에 첫 발을 디뎠다. 이들로 인해 하와이, 나아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 선조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뙤약볕 아래 사탕수수 밭에서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며 번 돈을 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치고 한국어 학교를 세웠다. 역사책이건 구전으로 듣는 이야기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들의 용기와 기백은 놀라웠다.

'무지개나라의 유산'은 총 여섯 편으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연작이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요약한 프롤로그 다큐,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하와이 한인이민 1세대의 직계 자손 5인과의 인터뷰 다섯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해리 김 전 빅 아일랜드 시장, 문대양 전 하와이 주 대법원장,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림, 데이지 양 작가, 게리 박 작가가 그 주인공으로, 모두 구한 말 꿈을 찾아 망망대해를 건넌 한인 이민 1세대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의 언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역사책 속 거대 담론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개개인의 진솔한 희로애락이 그들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출자로서나 인터뷰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져 촬영을 잠시 접어야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저 선조들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와이와 스톡홀름, 중국과 인도 등의 영화제를 통해 세계의 관객을 만나는 과분한 경험으로 이어졌다. 제 41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덕분에 모든 출연자를 모시고 근사한 영화관에서 최초 공개할 수 있었고,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경험도 했다. 민통선 안의 서화리 마을은 금강산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이다. 1979년, 정부가 30년 무이자 융자, 무료땅을 제공함에 따라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곳으로 이주해갔다고 한다. 1902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하와이로 떠난 것처럼 1979년에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서화리를 찾아간 것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 120주년을 맞는 올 해, 나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한다. 이번에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동안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말하는 건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다. 역사 속 그늘진 곳에 묻혀 있는 여성들의 서사, 높은 기개와 용기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지사의 이름으로, 묵묵히 그리고 가열하게 만들어온 그들만의 역사를 찾고 기록하고 싶다.

그건 나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겠지만,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다. 실패의 가능성을 두고도 믿는 바를 향해 정진하는 삶의 찬란함을. 사랑과 슬픔이, 충만함과 결핍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어느 지점에서 맺어지는 값진 열매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창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에 참여하세요

재단은 우수한 한글학교 교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2022년도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교사인증과정은 한글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한글학교 교사의 기초 소양인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표준 지식과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터디코리안 사이트의 재외동포 교육용 자료들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합니다. 학습자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수업능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 강의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언어 발달', '정서 발달' 등 다양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학생 상담 지도 및 정체성 함양, '프로젝트를 활용한 초급 수업안', '동요와 함께 배우는 의태어 · 의성어' 등 현장 맞춤형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강대상**
- 정규과정: 공관 등록된 한글학교 소속 교사
- 활용과정: 스터디코리안 회원

■ **운영기간**: 2022년 1월 3일 ~ 2022년 3월 31일

■ **개설과정**: 정규과정 1~2단계, 활용과정 1~4단계

■ **수강안내**: 스터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 교사인증과정 로그인 후 이용

2022년 1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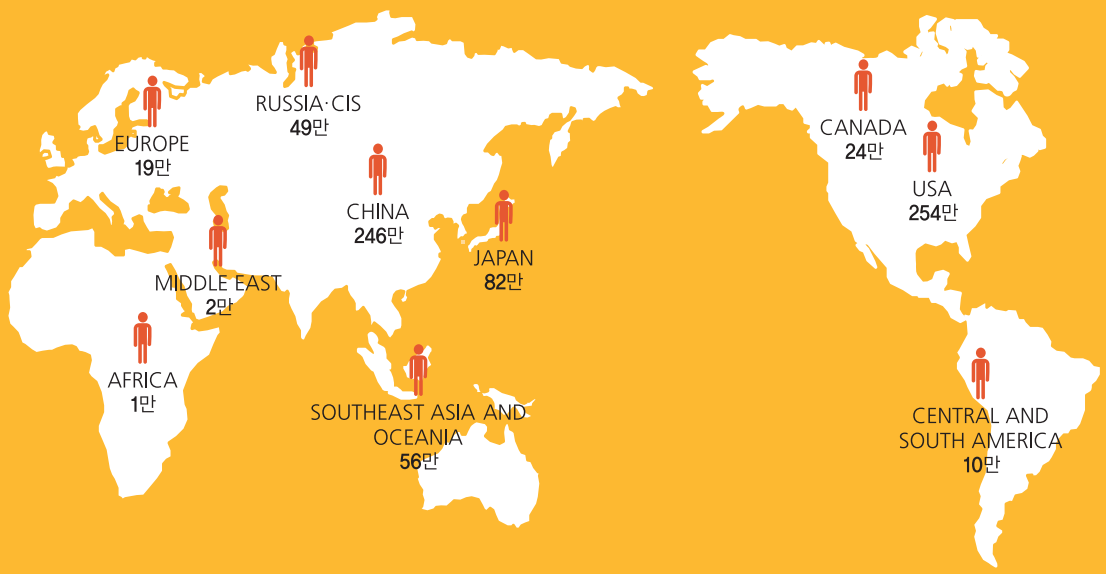
김성곤 이사장

- 1월 3일: **재외동포재단 시무식**
- 1월 19일: **미주장애인체육대회 발대식 참석**
- 1월 19일: **기후행동발대식 참석**
- 1월 20일: **미주상공인총연합회 회의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안넷

코리안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민원
- 재외동포 지원 사업
-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